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는 존재가 참 구세주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영적 동물이라고 부르죠? 영이 신이기 때문에 신적 동물이라는 이야기죠?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쓰여 있었죠? 사람의 마음이 영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죽는 순간 마음이 떠나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사람이 죽을 때 영이 죽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죽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망의 신

영 자체가 생명이고, 사람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속에 왜 있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인 고로 사람더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점령하여 사람을 만든고로 마귀가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하나님이 되면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면서 마귀가 발붙일 곳이 없어져요. 마귀는 철천지원수 지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인고로 마귀가 사망의 신이요, 사망의 신이 사자귀신이예요. 그 사자귀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간 속에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망의 신이요, 6000년 묵은 붉은마귀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마귀에게 포로 된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학문이 없었다고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학문을 논하는 주체가 사람인데 사람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게 학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개 자식은 개요, 소 자식은 소요, 말 자식은 말이요, 원숭이 자식은 원숭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자식만 사람이라면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 옛날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해왔죠? 이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인내천 사상을 울

부짚었는데 인내천 사상이라는 말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에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왔던 것은 단군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할아버지인고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가 사키는 대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마귀가 그렇게 불렀는데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마귀라는 말이에요. 주체 영이 마귀라면 주인공이 마귀라는 얘기도? 사람의 주인공이 마귀니까 사람이 마귀일 수밖에 없죠?

마귀를 바라보는 순간 마귀의 영이 들어와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었던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6000년 전에 마귀가 모방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을 입고 나타났다가 하나님의 영을 잃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순간 눈을 통하여 마귀의 영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나라는 의식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고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양심으로 이 인간 속에 남아 있는데 그 양심이 나라는 의식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기 시작한 것이 6000년 전이에요. 자손만대로 내려오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식들을 전부 죽여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을 때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마귀가 하나님의 영을 죽이면 사람은 죽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이 세상에 학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학문이 전부 잘못된 왜곡된 학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분향 천국이 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집이 하늘나라요? 마귀 새끼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당 간다고 속이죠? 죽어서 천당 가가지고 영혼



구세주 조희성님

이 영원무궁토록 천당에서 산다고 이와 같이 피시키고 거짓말해서 오늘날 사이버 종교들이 그걸 논하고 있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죽는 고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고로, 하나님의 영을 죽이는고로 사람이 죽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죠? 나 이만 많이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아,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 하고서 죽을 마음을 먹죠? 마귀가 그렇게 죽을 마음을 먼저 쥐가지고 그다음에 지쳐서 쓰러질 때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잔악한 신이고, 마귀가 악한 신인고로 이 악한 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전부 죽는 거예요.

자기 속에 조상의 영이 다 있다

죽은 사람의 영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죽은 사람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영은 자식 속에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의 영은 죽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피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피가 자식 속에 있어요, 죽은 사람의 피가 공중으로 날아가요? 자식 속에 있죠?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죽은 사람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자

식 속에 죽은 사람의 피가 들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피로 자식이 만들어지죠? 부모의 피가 자식 속에 있죠? 자식 속에 그 부모의 피가 있듯이 오늘날 자손만대로 최고의 조상의 영도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 속에 있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 모르는 게 무식한 거야, 유식한 거야? 무식한 게 학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학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조상의 영이 들어 있다는 걸 우리들이 널리 전파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 속에 있고, 그대로 그 사람이 죽을 때에는 생명의 영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마귀가 죽여서 죽임을 당해서 죽는 것인고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죽은 사람의 영이 들어서 살아 있을 때에는 죽은 사람들의 영들도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혼자서 사는 게 아니예요. 조상님들의 영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조상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어머니, 아버지가 내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내세가 무슨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사이버 종교들은 말하죠? 무식해서 그 래요. 내세라는 건 죽은 사람의 영이 사는

세계가 내세예요. 할아버지·할머니 영이 손자 속에 산다면 내내세(來來世)에서 사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할머니의 영이 고손자 속에서 산다면 내내내세(來來來世) 속에서 사는 거죠?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 참말로 이 세상은 캄캄한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이라고 성경에도 쓰여 있었죠? 왜 어둠의 세상인 줄 아세요? 아무 것도 모른다, 그거야 아무것도. 이 사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도로 되어야 천당도 가고 하늘나라도 가고 극락세계도 가는 거지, 하늘나라 극락세계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나 간다고 성경에도 쓰여 있고 불경에도 쓰여 있었죠?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쓰여 있었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성령이 하나님인고로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말이죠? 다시 태어나라는 말은 옛날에 하나님이었다는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이었으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이 태어나라, 이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나 하면 현재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이런 의미가 있죠? 맹추들은 그걸 몰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맹추는 그 말의 이면의 뜻을 감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나라는 주체의 영이 마귀인고로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되어라는 의미도 있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마음 품지, 사람이 하나님 마음 품을 수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 되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가

기독교인들은 성경만 끼고 다니지, 그 성경의 이면의 뜻을 몰라요. 그걸 갖다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줄 알아요. 아니, 죄인이 성령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사람으로서도 천당도 못 가고, 사람으로서는 극락세계도 못 가고, 하나님으로서는 극락세계도 못 가고, 하나님의 집에 못 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사람더러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그거 거짓말도 보통 거짓말이야, 엄청난 거짓말이야? 엄청난 거짓말이죠? 진짜 그런가 싶어서 교회당을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못 가게 되어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천국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속에 천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도 되는 거죠? 그러고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야 하늘나라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늘나라가 아니예요. 아시겠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살아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이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니까 산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세밀하게 알기 좋게 성경은 쓰여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멍텅구리 바보들이 가르치니까,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구세주야라 성경을 가르치는 거지, 정도령이냐라 똑바른 말로 가르치는 거지, 그대로 구세주가 아닌 존재는 모르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죠?*

2000년 11월 14일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5장 모세》 (7) 미디안에서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

(6) 제사장 이드로 집 뒤편의 호렘산에 나타나신 하나님

(지난호에 이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으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 말씀대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또 뱀은 도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자, 이런 기적을 보이면 사람들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네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라." 모세가 그 말씀대로 손을 넣었다가 다시 꺼내니까 모세의 손은 하얗게 나뉘어 자의 손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호주머니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니가 손을 깨끗하게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강에서 물을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리하면 그 물은 피로 변할 것이다." 그래도 모세는 또 하나 큰 걱정이 있었

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말재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일이 헛헛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보내지 마시고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

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저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곳을 떠난 지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일가들도 모두 평안히 있는지 궁금하니 가서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이드로는 선선히 그 자리에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안심하고 떠나가거라. 자네가 다시 올 때까지 너의 처 심보라와 너의 두 아들 게르솨와 엘리에셀을 잘 돌볼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심보라는 나의 딸이요, 게르솨와 엘리에셀은 나의 손자이니라." (7) 미디안에서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

동편 바닷가의 누웨바에서 그의 형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모세의 가족과 이드로 장인에게 속하는 힘센 종들이 모세를 전송하기 위해 하룻길 되는 먼 곳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모세와 동행한 일행은 바다 건너편에 애굽의 누웨바가 바라보이는 미디안 해변의 마을로 향해 가던 도중에 밤이 깊어 대상들이 쉬어가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에 모세의 신음 소리를 아내 심보라가 잠결에 듣고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의 남편이 가위눌림으로 사지마지 뻗뻗해지며 죽기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까. 심보라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자신의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두 아들을 사로잡은 마귀가 모세를 먼저 목을 졸라 죽이고 그다음에 그의 두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자신은 태어날 때 할례를 받았지만, 모세의 두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요리를



심보라가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다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미디안의 여자 심보라에게 차돌을 취하여 그의 두 아들의 양피를 베게 했습니다. 그녀는 인사불성이 된 모세를 대신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니, 목을 조르고 있던 마귀가 기겁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심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양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날이 밝아오자 모세는 가족의 전송을

받으면서 배 위에 올랐습니다. 흥해를 건너 누웨바에 이르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형 아론이 모세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내반도를 가로질러 카이로에 있는 아버지 아브람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130세의 아버지 아브람은 매우 늙어서 몇 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죽기 전에 아들 모세를 꼭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큰아들 아론에게 명하여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 형제는 시내반도를 가로질러 카이로에 있는 아브람의 집에 당도했습니다.(다음호에 계속)*